



“이렇게 좋을수가”... 환호하는 감독·MVP 2일 오후 충남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배구 KT&G 2005-2006 V-리그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삼성화재를 꺾고 통합우승이 결정되자 현대캐피탈의 김호철 감독과 루니가 마주보며 두팔을 번쩍들며 환호하고 있다.

현대캐피탈·흥국생명 통합 우승

최종전서 삼성화재·도공에 3-0, 3-1 승리 최우수 선수엔 용병 루니·김연경 뽑혀

현대캐피탈이 프로배구 첫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11년 만에 정상 탈환의 감격을 누렸다. 여자부에서도 정규리그 우승팀 흥국생명이 도로공사를 눌러 정상에 올랐다.

‘장신군단’ 현대캐피탈은 2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배구 KT&G 2005~2006 V-리그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손 루니-후인정 좌우쌍포를 앞세워 ‘무적함대’ 삼성화재를 3-0(25-21 25-13 25-21)으로 완파했다.

정규리그 우승팀 현대캐피탈은 이로써 챔피언결정전 전적 3승2패로 통합 우승까지 거머쥐며 ‘만년 2위’ 꼬리표를 떼고 새로운 최강자로 떠올랐다. ‘특급 용병’ 루니는 총투표 30표 가운데 22표의 몰표를 받아 챔피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현대캐피탈이 정상에 선 것은 1995년 슈퍼리그 챔피언전 이래 꼭 11년 만이다. 현대캐피탈 전신 현대자동차 서비스는 당시 ‘임격정’ 임도현과 강성형, 박종찬, 윤종일, 진창욱 등을 내세워 이상열이 버틴 LG화재에 3연승을 거뒀다.

현대캐피탈은 그러나 이듬해 박상용, 이상희가 버틴 고려증권에 1승3패로 패권을 내준 뒤 1997년부터는 신생팀 삼성화재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2위에 머물러왔다.

여자부 챔피언결정 최종전에서 흥국생명은 MVP로 뽑힌 ‘슈퍼루키’ 김연경의 맹활약으로 도로공사에 3-1(18-25 25-20 25-18 25-20)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3승2패로 우승컵을 안았다.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챔피언까지 석권, 지난해 끝까지 챔피언으로 둔갑하는 ‘코트의 반란’을 일으켰다.



2일 오후 충남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에서 도로공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기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흥국생명은 10년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형 신인 김연경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반면 도로공사는 주포 임유진의 부상 공백이 아쉬운 한판이었다.

흥국생명은 승부의 분수령이 된 3세트에서 김연경이 필살 날고 황연주와 윤수현이 득점에 가담하며 한송이가 고군분투한 도로공사의 추격을 따돌렸다. 김연경-황연주 쌍포를 앞세워 4세트에서도 시종 일관 리드를 지킨 흥국생명은 24-20 매치 포인트에서 김연경의 전광석화 같은 속공이 꽃이며 감격의 우승을 결정지었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성남 일화, 포항 꺾고 선두 지켜

이동국 3경기 연속골



역시 한 골을 추가한 우성용(성남)과 함께 득점 공동 선두(5골)를 달렸다.

성남은 2일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6차전에서 후반 14분 모파, 19분 우성용의 연속골로 44분 이동국이 1골을 만회한 데 그친 포항을 2-1로 눌렀다.

성남은 5승1무(승점16)로 2위 포항과 격차를 6점차로 벌리며 선두를 내달렸다.

한발발에서는 대전 시티즌과 FC서울이 공방 끝에 득점없이 비겼다.

서울의 천재 골잡이 박주영은 시즌 4호 골에 도전했으나 집중 견제를 받아 이렇다할 찬스를 잡지 못했다.

전북 현대는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37분 ‘효자 이적생’ 김형범의 시즌 2호골로 1-0으로 이겼다.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는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경기에서는 수원이 울산 현대를 2-1로 제압했고 경남 FC-광주 상무, 부산 아이파크-전남 드래곤즈 경기는 모두 1-1 무승부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호석 500m 동·안현수 실격

세계쇼트트랙선수권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기대주’ 이호석(20·경희대)이 2006 국제빙상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함께 결승에 올랐던 안현수(21·한국체대)는 2위로 들어왔지만 실격당해 대회 전종목 석권의 기회를 날렸다.

이호석은 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매리우치 아레나 링크에 서 펼쳐진 대회 이틀째 남자 500m 결승에서 안현수, 리하오난(중국), 프랑소아 루이 트랑블레(캐나다)와 경쟁을 벌여 4위로 들어왔지만, 안현수의 실격으로 우여곡절 끝에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지성·이영표 평점 6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태극 전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 핫스퍼)가 나란히 평점 6점을 받았다.

박지성은 1일 밤(이하 한국시간) 열린 볼튼 원더러스와 원정경기(2-1 승) 후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로부터 ‘인상을 남길 기회가 적었다(Little chance of impression)’는 평가와 함께 6점을 받았다.

박지성은 이날 팀이 2-1로 앞선 후반 45분 교체 투입돼 인저리타임까지 약 4분을 뛰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쿠즈네초바 나스닥오픈 정상

샤라포바 2-0 꺾어

러시아 여자 테니스 스타인 스베틀라나 쿠즈네초바(세계랭킹 14위)가 ‘테니스요정’ 마리아 샤라포바(4위, 러시아)를 꺾고 총상금 345만 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여자프로테니스(WTA) 공동 투어 대회 나스닥 100오픈에서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쿠즈네초바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키비스케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샤라포바를 2-0(6-4 6-3)으로 누르고 지난 2004년 9월 인도네시아 발리 오픈 이후 1년 7개월 만에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3일(월)
▲메이저리그 개막전(클리블랜드-시카고 W)(08 : 30·Xports)
▲세계 대학태권도선수권 대표 선발전(14 : 10·KBS1)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2차전(오리온스-동부)(19 : 00·Xports)



축구야? 발레야?

2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 K-리그 대전 시티즌 대 FC 서울의 경기에서 서울 김동진(오른쪽)과 대전 김정훈이 공중볼을 다루고 있다.

전주 KCC 극적 역전... 4강 올라



KCC는 2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5~2006 KCC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 2차전 KTF와 홈경기에서 78-77로 승리, 2연승으로 4강에 올랐다.

3시즌 연속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KCC는 오는 7일부터 정규리그 우승팀

울산 모비스와 5전 3선승제의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3쿼터까지 66-55로 여유있게 앞서던 KCC는 4쿼터 들어 KTF의 거센 반격에 경기 종료 4분23초를 남기고 69-68, 역전을 허용했다.

KCC는 74-77로 뒤져 패색이 짙던 경기 종료 3.2초 전, 추승균이 정면에서 3점슛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고 상대 김도수의 반칙으로 얻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 결국 78-77 극적인 승리를 다했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orful ads for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Advertisements include 'PC방' (PC cafes), '파워클럽' (Power Club), '아나로통신' (Anaro Communication), and '사은대축제' (Gift Festival). Each ad features images of product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